

꾸중듣던 중3생

95.6.29

어머니 흥기살해

28일 오전 9시10분께 전남 순천시 중앙동 이창기(49)씨 집 안방에서 이씨의 아들(14·중3년)이 등교를 재촉하며 꾸중하는 어머니 정정자(46)씨를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흥기로 배를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.

이군은 이어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 장아무개(47·여)씨를 폭행한 뒤 흥기로 자신의 배 등을 찌르는 등 자해소동을 벌이다

경찰에 붙잡혔다.

1남4녀의 막내인 이군은 경찰서 “누나가 사준 구두를 신고 교하려는데 신발이 보이지 않아 짜증을 부리다 어머니가 심하게 꾸중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아 일을 저질렀다”고 말했다.

경찰은 이군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
순천/이수범 기자